

원저

十四經脈中 ‘風’ 字가 包含된 經穴에 對한 文獻的 考察

이언도 · 김갑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Study of the fourteen meridians that include name of P'ung (風) point

Ön-do, Lee · Kap-Sung,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Study of the fourteen meridians that include name of P'ung(風) point .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Pyongp'ung(秉風) is located middle of the supraspinatous fossa(Small intestine Meridian, 手太陽小腸經). we can cure the local area disease and also use to cure the pathway of the Arm greater yang small intestine which is attacked by P'ung(風) disease.
2. Yep'ung(翳風) is located behind the lobule of the auricle, in the depression between the mastoid process and the mandible(Triple Energizer Meridian, 手少陽三焦經). we can cure the local area disease especially hyper yang disease and also use to cure the pathway of the Arm lesser yang triple energizer which is attacked by P'ung(風) and Yöl(熱) disease.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접수 : 2000년 8월 10일 · 수정 : 8월 22일 · 채택 : 8월 26일

· 교신저자 : 김갑성, 서울 강남구 논현1동 37-21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침구과(Tel. 02-3416-9739)

3. P'ungmun(風門) is located 1.5 chon beside the lower end of the spine of the second thoracic vertebra(Bladder Meridian, 足太陽膀胱經). we can cure the local area disease and also use to cure the pathway of the Leg greater yang bladder which is attacked by P'ung(風) disease.

4. P'ungbu(風府) is located 1 chon above the middle of natural line of the hair at the back of the head, in the depression below the occipital protuberance(Governor meridian, 督脈). It connects (Liver meridian, 足厥陰肝經) and Yin Link Vessel(陽維脈). we can cure the rigidity and pain in head and nape which is related Yin Link Vessel(陽維脈).

5. P'ungshi(風市) is located on the lateral part of the thigh, 7 hon above the patella(From the greater trochanter to the knee joint is 19 chon, Gallbladder Meridian (足少陽膽經). we can cure the local area disease(leg, knee, etc).

6. P'ungji(風池) is located Below the occipital bone, in the depression on the outer part of the trapezius muscle(Gallbladder Meridian, 足少陽膽經) on a level with P'ungbu(風府) (Governor vessel, 督脈). we can cure the local area disease and also use to cure the pathway of the Leg lesser yang gall bladder which is attacked by P'ung(風) disease.

Key Words : Pyongp'ung, P'ung, Yöl(熱), Yep'ung, P'ungmun, P'ungbu, P'ungshi, P'ungji,

I. 서론

經穴學은 經絡理論에 根據를 두고 발전하였고 經絡理論은 生理, 病理, 診斷, 藥理學, 針灸治療學등에 광범위하게 應用되어 왔다. 특히 經絡선상에 存在하는 經穴은 疾病의 反射點, 過敏點으로서 이를 治療點으로 規定하는 것은 經驗的인 것에서 始作된 것으로 추측된다.

근래에 와서는 經絡上의 經穴을 應用할 뿐만 아니라, 經驗穴을 비롯하여 經外奇穴, 阿是穴, 頭針穴, 面針穴, 耳針穴, 鼻針穴, 手針穴, 足針穴, 等 新針療法的 新穴들이 나타나 臨床에 활용되고 있다¹⁾. 이

러한 經穴들중 특히 十二經脈과 任督脈上의 經穴을 總括하여 十四經穴 또는 正經穴이라고 하는데²⁾ 이들 經穴은 各各의 特徵的인 主治病症를 가지고 있다.

經穴의 命名에 대한 由來는 여러 가지로 分類가 되는데, 위로는 하늘을 살피고 아래로는 땅을 觀察하고 멀리는 모든 萬物로써 取하고 가까이는 온몸으로써 取하여 多方面으로 集成하여 命名을 하였다.

이를 크게 두가지로 分類하면 첫째로 象을 비유하여 그 이름을 取하였는데 이는 自然現象과 社會形態의인 方面에서 이름을 빌려온 것으로 예를들면 上星, 天宗, 天池, 天泉等과 같이천문성상과 기후를 비유한것이 있고 率谷, 合谷, 陽谷, 血海, 曲泉等과 같이한 지리지형을 비유한것이 있으며 勞宮, 中府, 足三里, 風市等과 같이 居處와 社會形態를 비유한

것도 있고 玉堂, 神堂, 神門, 氣舍等과 같이 人體臟腑와 官制를 비유한것이 있다.

둘째로는 形을 추리하고 살피어 取하였는데 이는 《素問·至眞要大論》⁹⁾에서 “以名命氣, 以氣命處” 라 한것처럼 人體의 肢節臟腑에 依據하거나 그 機能과 局部形象에 따라 命名한 것으로 예를들면 肺俞, 膀胱俞, 關元俞等은 人體各部의 名稱과 經穴을 相應하는 名稱으로 썼고 瞳子膠, 頭維, 乳中, 肩髃等은 人體局部形象을 추리하여 命名하였으며 水道, 氣海等은 經穴의 機能을 추리하여 이름을 取하였다.³⁾

韓醫學에서의 風이 가지는 意味는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六氣의 現象으로 人體의 正常的인 生理活動에서 發顯되는 風과 둘째, 《靈樞·九鍼十二原篇》⁵⁾에서 “若風之吹雲 明乎若見蒼天” 이라고 하여 기후의 變化에 依해 發顯되는 風과 셋째, 《素問·骨空論》⁹⁾에서 “風從外入 令人振寒汗出 頭痛 身中 惡風寒” 이라고 한 六淫의 風邪와 넷째, 《素問·至眞要大論》⁹⁾에서 “諸暴強直 皆屬於風” 이라고 한 人體內部的 生理機能 失調에 依해 發顯된 風과 다섯째, 《靈樞·壽夭剛柔篇》⁵⁾에서 “病在陽濟, 命曰風” 이라고 한 病名으로서의 風으로 되어 있다.⁴⁾

따라서 十四經의 正經穴中 “風” 字를 지닌 經穴은 以上の 風으로 發顯되는 病症의 針灸治療에 使用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風” 字를 지닌 經穴이 실제 病의 原因으로서의 風을 治療하는데 있어 어떤 相關關係가 있는지를 文獻의으로 調査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報告하는 바이다.

- (2) 針灸甲乙經·皇甫謐：晉代
- (3) 肘後備急方·葛洪：晉代
- (4) 黃帝內經太素·楊上善：隋唐代
- (5) 黃帝內經素問·王冰：唐代
- (6) 備急千金要方·孫思邈：唐代
- (7) 千金翼方·孫思邈：唐代
- (8) 外臺秘要·王燾：唐代
- (9) 針灸資生經·王執中：宋代
- (10) 聖濟總錄·曹孝忠：宋代
- (11) 扁鵲神應針灸玉龍經·王國瑞：元代
- (12) 明堂灸經·西方子：元代
- (13) 針灸聚英·高武：明代
- (14) 醫學入門·李梴：明代
- (15) 古今醫統大全·徐春甫：明代
- (16) 鍼灸大成校釋·楊繼洲：明代
- (17) 類經圖翼·張介賓：明代
- (18) 神應經·陳會：明代
- (19) 醫學綱目·樓英：明代
- (20) 鍼灸大全·徐鳳：明代
- (21) 針方六集校釋·吳崑：明代
- (22) 羅遺編·陳廷銓：清代
- (23) 瘍醫大全·顧世澄：清代
- (24) 釐正按摩要術·張振望：清代
- (25) 針灸逢源·李學川：清代
- (26) 繪圖針灸易學·李守先：清代
- (27) 醫心方·丹波康賴：1859년,
- (28) 針灸指南·鍼灸醫學典籍大系
- (29) 圖解十四經發揮·本間祥白：1965
- (30) 鍼灸治療學·林鍾國：1983
- (31) 針灸穴名釋義·周楣聲：1984
- (32) 新編鍼灸大辭典·程寶書主編：1995

II. 본론

1. 調査資料 및 研究方法

1) 調査資料

- (1) 靈樞經：漢代

III. 총괄 및 고찰

經穴은 針灸學의 중요한 部分으로 針灸로 疾病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經穴의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十四經脈의 經穴은 각기 일정한 部位와

名稱이 있으니 이를 《素問·陰陽應相大論》⁹⁾에서는 “氣血所發, 各有處名”이라 하고 《千金方》¹⁰⁾에서는 “凡諸孔穴, 名不徒設, 皆有深意.”라 하였다.

이는 經穴의 命名이 초기의 以痛爲輸와 有穴無名에서 점차로 經穴의 部位와 治療 作用, 당시의 文化, 自然條件, 醫學原理 等に 根據를 두고 經穴의 名稱이 制定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鍼灸經穴學에서 經穴의 命名은 經穴의 特성과 主治機能, 소속된 部位에 근거하여 事物의 現狀과 性質에 비유하는 비유법, 骨格, 筋肉과 皮膚等의 해부학적 形狀에 根據하여 命名하는 象形法, 經穴 자체의 生理病理와 解剖等의 特徵에 根據하여 經穴의 特徵이 名稱으로 反映되게 하는 會意法, 經穴 자체의 分布 部位와 主治機能에 根據하여 經穴의 特徵을 따라 名稱을 정하는 寫實法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經穴의 名稱은 鍼灸學에서 일정한 意義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經穴命名의 解釋은 針灸經穴의 學習과 研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韓醫學에서는 風邪를 外感발병의 매우 중요한 發病인자로 여기는데, 모든 外感병은 모두 風邪를 感受하여 생길 수 있고, 또한 항상 다른 外邪와 兼하여 發病하게 한다. 그러므로 《素問·風論》⁹⁾에 “風者百病之長也”라는 내용이 있다. 風病에는 內風과 外風의 區分이 있어서 外風은 風邪가 人體를 侵襲하여 病이 된것이고 內風은 主로 肝臟의 陰陽氣血機能의 失調로 생긴 것이다.

風邪라는 표현은 自然界의 바람의 現象을 人體가 發病時에 나타내는 일련의 病理反應과 證候를 比喻한 것이다. 自然界의 바람은 일종의 無形的이고 流動的인 氣流이며, 來去가 比較的 빠르고 時有時無하며, 또한 능히 樹木枝葉을 動搖케 하며 또한 變化가 多樣하다.

이러한 風은 그 성질이 輕揚하여 善動不居하고, 向上向下하여 昇發하는 特性이 있으므로 陽邪에 屬한다. 昇散하고 向上向外하여 잘 游移하므로 風邪는 恒常 쉽게 人體의 上部(頭面, 頭頂), 表部(皮毛, 肌膜, 筋肉)및 肺臟을 침범한다.³⁶⁾

이에 저자는 針灸治療에서 穴名에 '風' 字를 지니는

經穴의 命名이 가지는 意義와 穴位, 出處, 歸經과 穴性, 主治等を 살펴보고 그 經穴이 실제 風을 治療하는데 어떤 關係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먼저 '風' 字가 屬한 經穴명은 秉風, 翳風, 風門, 風府, 風市, 風池이며 이들은 각각 手太陽小腸經(秉風), 手少陽三焦經(翳風), 足太陽膀胱經(風門), 督脈(風府), 足少陽膽經(風市, 風池)에 소속되어 있으며 各各의 穴位를 살펴보면 頭部와 頸項部 肩背部와 下肢部에 分布해 있는데 風市를 제외한 나머지 穴들이 肩背以上에 있어 風邪의 常習侵犯部位와 그 分布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秉風은 《鍼灸甲乙經》⁶⁾에서 처음 나타나는 혈로 《素問·氣府論》⁹⁾에서는 異名을 肩解라 하였고 秉은 同柄, 卽 權柄을 風은 風邪를 의미하는 것으로 背風邪를 치료하는 權柄이 所在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秉風의 穴位에 대해서 《甲乙經》⁶⁾에서는 “俠天窕在外肩上小髑骨後, 舉臂有空”이라 하고 《鍼灸大全》²⁴⁾《醫學入門》¹⁸⁾에서는 天宗之前이라 하였으며 《新編鍼灸》³⁵⁾에서는 “在肩胛部, 岡上窩中央, 天宗直上, 舉臂有凹陷處”이라 하였으나 그 실제적 穴位는 同一한 것으로 思料된다¹⁾.

秉風의 歸經에 대해서는 《素問·氣府論》⁹⁾에서는 手太陽小腸經이라 하였는데 手太陽小腸經은 《靈樞·經脈》⁵⁾에서 “小腸手太陽之脈 其於小指之端 循手外側 上腕 出踝中 直上循臂骨下廉 出肘內側兩筋之間 上循臑外後廉 出肩解 繞肩胛 交肩上 入缺盆 絡心 循咽 下膈 抵胃 屬小腸 其支者 從缺盆循頰上 頰 至目銳眦 却入耳中 其支者 別頰上頰 抵鼻 至目

1) 秉風의 出處 및 部位

出處：秉風, 俠天窕, 在外肩上小髑骨後, 舉臂有空, 舉取, 手陽明, 太陽, 手足少陽之會.⁶⁾

異名：肩解.^{8,9)}

部位：· 俠天窕在外肩上小髑骨後, 舉臂有空.⁶⁾

· 天宗之前.^{18,24)}

· 肩髃外, 舉臂取之.²⁸⁾

· 在肩胛部, 岡上窩中央, 天宗直上, 舉臂有凹陷處.³⁵⁾

· 肩髃棘 中央上側의 外側陷中.¹⁾

內皆斜絡於顛。”이라 하여 本經의 俞穴이 經脈循行處의 手, 腕, 肘, 臂, 肩, 頸項, 耳, 目, 趾의 치료에 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是動則病噎腫 頰腫 不可以顧 肩似拔 臑似折. 是主液所生病者 耳聾 目黃 頰腫 頸項 肩臑 肘臂外後廉痛.” 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經脈循行處의 病變임을 알 수 있다.

특히 手太陽小腸經에서 병풍은 肩胛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침구서적에서 手陽明, 太陽 및 手足少陽의 會라 하였으며 《針灸治療學》³⁴⁾에서는 手太陽, 陽明이 교회하는 穴이라 하였으니, 秉風은 足少陽 혹은 手少陽 혹은 手陽明의 經氣가 失常되어 나타나는 局所의 疾患을 治療하는데 使用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文獻上에 나타나는 秉風의 主要主治症을 살펴보면 肩痛不能舉, 肩胛痛, 肩臂酸痛, 頸項強直, 上肢神經痛 및 麻痺, 尺骨神經痛, 上腕無力, 胸膜炎, 耳下腺炎, 肺炎등과 같이 주로 手太陽小腸經의 순행처에 風邪가 侵襲하여 나타나는 疾患에 많이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한편 秉風의 刺針深度는 5分 以下가 主된 方法이고 艾灸는 3壯~7壯으로 多樣하게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2) 秉風의 經穴命名의 意義 및 歸經과 穴性

① 經穴의 意義

秉, 同柄, 卽權柄. 風, 風邪. 指穴爲治療背風邪之權柄所在.

秉, 柄也. 《管子·小匡》: ‘治國不失其秉.’ 又操持也. 《詩·鄘風·定之方中》: ‘秉心塞淵.’ 權柄在握, 隨我操持, 則風病無憂矣.³⁴⁾

② 歸經과 穴性:

- 手太陽小腸經.^{9,35)}
- 手陽明, 太陽, 手足少陽之會.^{6,9,12,14,17,19,21,23,20,25,35)}
- 手太陽, 陽明이 交會.¹⁾

3) 秉風의 主治

- 主治: · 肩痛不能舉.^{6,12,14,16,17,18,19,20,21,25,29,31)}
- 胸膜炎, 耳下腺炎, 肩痛不能舉, 上肢神經痛 및 麻痺, 尺骨神經痛, 上腕無力, 肺炎.¹⁾
 - 肩胛痛, 肩臂酸痛, 頸項強直.³⁵⁾
 - 胸膜炎, 耳下腺炎, 肩痛不能舉, 上肢神經痛 및 麻痺, 尺骨神經痛, 上腕無力, 肺炎.¹⁾

4) 秉風의 針法 및 灸法

針法: · 針刺入五分.^{1,6,13,14,18,21,23,25,29,30,31,32)}

鬢風은 《甲乙經》⁶⁾에서 처음 나타나는 經穴로 鬢는 掩蔽로 보이지 않게 가린다는 意味로 風은 風邪를 가리키므로 屏蔽風邪하는 곳이라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

鬢風의 穴位에 대해서 耳後陷中, 在耳後尖角陷中, 耳珠後陷中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耳垂의 後下方으로 乳嘴突起와 下顎枝와의 中間陷中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⁵⁾.

鬢風의 歸經에 대해서 《新編鍼灸》³⁵⁾에서는 手少陽三焦經이라 하였는데 手少陽三焦經은 《靈樞·經脈》⁵⁾에서 “三焦手少陽之脈 起於小指次指之端 上出兩指之間 循手表腕 出臂外兩骨之間 上貫肘 循臑外 上肩 而交出足少陽之後 入缺盆 布臑中 散落心包 下膈 循屬三焦 其支者 從臑中 上出缺盆 上項繫耳後 直上出耳上角 以屈下頰至頰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過客主人前 交頰 至目銳眦.” 라 하여 本經의 俞穴이 경맥순행처의 手, 腕, 肘, 臂, 肩, 耳, 目, 臑, 頭顛疾患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少陽經脈의 外經病候에 대해서 “是動則病耳聾渾渾焯焯 噎腫 喉痺. 是主氣所生病者 汗出 目銳眦痛 頰痛 耳後 肩 臑 肘 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 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經脈循行處의 病變임을 알 수 있다.

특히 手少陽三焦經에서 鬢風은 耳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침구서적에서 手足少陽之會라 하였으며 《針灸治療學》¹⁾에서 그 穴性을 調三焦氣機, 通竅聰耳, 祛風泄熱라 하였으니 鬢風은 穴位 所在의 局所部位의 疾病을 治療하고 그 중에서도 陽實症을

· 針0.5~1寸.³⁵⁾

灸法: · 灸五壯.^{6,12,13,14,23,25,30,31,32)}

灸三壯.^{9,16,18,21)}

灸七壯.²⁹⁾

灸3~5壯.^{1,35)}

5) 鬢風의 出處 및 穴位

出處: 鬢風, 在耳後陷者中.⁶⁾

穴位: 耳後陷中.^{6,9,10,11,12,13,14,16,31)}

在耳後尖角陷中.^{17,20,21,23,28,29,30,32,33)}

耳珠後陷中.¹⁸⁾

耳垂의 後下方으로 乳嘴突起와 下顎枝와의 中間陷中.¹⁾

치료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문헌 상에 나타나는 翳風의 주요 주치증을 살펴보면 耳鳴, 耳聾, 口眼喎斜, 口噤不開, 脫頰頰腫, 牙車急痛, 瘖不能言, 癩癩 등과 같이 주로 手少陽三焦經의 순행 처에 風熱邪가 침습하여 나타나는 질환에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

한편 翳風의 刺針深度는 三分, 四分, 七分, 半寸, 直刺 0.8~1.2寸. 斜刺 1.5~2寸등으로 다양하고 艾灸는 3壯~7壯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6) 翳風의 經穴命名의 意義 및 歸經과 穴性

經穴의 意義 : 翳, 見屋翳條. 風, 風邪. 穴當衣領上緣, 正爲屏蔽風邪之處.³⁴⁾
 歸經과 穴性 : 手少陽三焦經.³⁵⁾
 手足少陽之會.^{1,6,9,12,14,17,20,21)}
 23,25,29)

調三焦氣機, 通竅聰耳, 祛風泄熱.¹⁾

7) 翳風의 針法 및 灸法과 主治

- 針法 : • 刺入四分.^{6,25,31)}
 • 針三分.^{9,17,18,20,21,29)}
 • 針入七分.^{13,17,20)}
 • 針入半寸.¹⁵⁾
 • 直刺 0.8~1.2寸. 斜刺 1.5~2寸.³⁵⁾
 • 針深度 5分~1寸.¹⁾
- 灸法 : • 灸三壯.^{6,9,12,13,17,20,25,31)}
 • 灸七壯.^{13,15,16,17,18,20,21,29)}
 • 灸量 3~5壯.¹⁾
- 主治 : • 瘖不能言, 聾, 口僻不正, 失欠, 口不開.⁶⁾
 • 口失欠, 下牙齒痛, 骨痠, 眩, 狂, 癡癡, 口噤, 喉鳴沫主 治 : 出, 瘖不能言.¹⁰⁾
 • 主聾, 喎不正, 失欠, 口噤不開, 瘖瘖不能言.^{12,31)}
 • 治耳聾, 口眼喎斜, 失欠, 脫頰, 口噤不開, 瘖不能言, 頰腫, 牙車急痛.¹⁴⁾
 • 主耳痛鳴聾, 口噤不開引鼻中, 口先欠, 下牙齒痛, 口眼喎斜, 失欠脫頰, 口噤不能言, 頰腫, 牙車急痛.¹⁶⁾
 • 主耳鳴耳聾, 口眼喎斜, 脫頰頰腫, 口噤不開, 不能言, 口吃, 牙車急, 小兒喜欠.^{17,20,32)}
 • 主耳痛鳴聾, 口噤, 口眼喎斜, 下牙齒痛, 失欠, 脫頰, 頰腫, 牙車急痛.¹⁸⁾
 • 主耳聾耳鳴, 口眼喎斜, 阿欠脫頰, 口噤難言, 頰腫, 牙車急, 耳中膿, 癩癩, 項強.²⁵⁾
 • 主治耳聾, 口眼喎斜, 口噤不開, 脫頰, 頰腫, 牙車急痛, 瘖瘖不能言, 一云耳紅腫痛瀉之. 耳虛鳴補之, 補多瀉少.²¹⁾
 • 治耳聾, 口眼喎斜, 脫頰, 頰腫, 癩癩.²⁹⁾

風門은 《甲乙經》⁶⁾에서 처음 나타나는 經穴로 그 異名을 熱府 혹은 背俞라 하는데 《針灸治療學》¹⁾에서는 左側의 穴位을 風門이라 하고 右側의 穴位을 熱府라 한다고 하였다⁸⁾.

風門의 風은 氣를 가리키고, 또한 風邪를 가리키며 門은 門戶를 의미하는 것으로, 風門은 肺氣의 出入과 風邪가 犯入하는 門戶로 治風治氣에 마땅히 取할 곳이 된다⁹⁾.

風門의 穴位에 대해서 在第二椎下兩傍各一寸五分, 中行各開寸五分, 第一大杼二風門, 風門二節外一寸半, 이라 하고 二椎下兩傍去脊各二寸 이라 하여 약간의 위치차이가 있으나 그 穴位은 第 2~3胸椎間(第 2椎下)下 兩方各 1寸5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風門의 歸經에 대해서 《新編鍼灸》³⁵⁾에서는 足太陽膀胱經이라 하였는데 足太陽膀胱經은 《靈樞

- 主治耳鳴, 耳聾, 口歪, 口噤, 脫頰, 齒痛, 頰腫, 癩癩, 眼痛.³⁵⁾
- 偏頭痛, 耳鳴, 耳聾, 中耳炎, 顔面神經麻痺, 齒痛, 咽頭炎, 口眼喎斜, 脫頰頰腫, 口噤, 牙關急, 吃逆, 中風半身不遂, 耳下腺炎, 上肢痛 및 麻痺.¹⁾

8) 風門의 出處, 異名 및 穴位

- 出處 : • 風門熱府, 在第二椎下兩傍各一寸五分.⁶⁾
 異名 : • 熱府.^{6,10,11,12,13,14,17,19,20,21,24,25,29,32,35)}
 • 在第二椎下兩傍各一寸五分.^{6,9,10,11,12,13,14)}
 15,16,17,19,20,23,25,27,28,30,31)
- 中行各開寸五分, 第一大杼二風門.²⁴⁾
 • 風門二節外一寸半.¹⁸⁾
 • 二椎下兩傍去脊各二寸.^{21,29,32)}
 • 在背部, 當第2胸椎棘突下, 旁开 1.5寸.³⁵⁾
 • 第 2~3胸椎間(第2椎下)下 兩方各 1寸5分.¹⁾

9) 風門의 經穴命名의 意義 및 歸經과 穴性

- 經穴의 意義 :
- 風, 指氣, 又指風邪. 門, 見雲門條. 風門者, 既爲肺氣出入與風邪犯人之門戶, 也爲治風治氣之所宜取. “《廣雅·釋言》: ‘風, 氣也.’ 故風並不單指風之邪氣而言. 穴在肺俞之上方, 爲肺氣出入之所必由., 用治風邪外感, 上氣欬逆諸病, 將有雙重意義.³⁴⁾
 - 足太陽膀胱經.³⁵⁾
 - 督脈足太陽之會.¹⁾
 - 祛風宣肺 疏經解表.¹⁾

經脈》에서 “膀胱足太陽之脈 起於目內眥 上額 交巔; 其支者 從巔至耳上角 其直者 從巔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挾脊 抵腰中 入循膂 絡腎 屬膀胱; 其支者 從腰中下挾脊 貫臀 入膕中 其支者 從膕內左右別下 貫胛 挾脊內 過髀樞 循髀外 從後廉 下合膕中 以下貫腓內 出外踝之後 循京骨 至小趾外側。” 이라 하여 本經의 俞穴이 경맥순행처의 病變과 五臟, 六腑 및 腦의 病症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太陽經脈의 外經病候는 “是動則病衝頭痛 目似脫 項如拔 脊痛 腰似折 髀不可以曲 膕如結 踰如裂 是爲蹇蹇, 是主筋 所生病者 痔 瘡 狂 癲疾 頭顛項痛 目黃 淚出 軌衄 項背腰尻 膕踰 脚皆痛 小趾不用” 로 太陽經症과 經脈循行處의 眼目, 下肢病變임을 알 수 있다.

문헌상 風門의 主治를 살펴보면 風眩頭痛, 緩急諸風, 半身不遂, 目閉耳聾, 角弓反張, 傷寒項強, 胸痛背痛, 胸中熱, 背癱疽, 喘息, 上氣嘔逆, 등이다¹⁰⁾.

10) 風門의 主治

- 風眩頭痛, 鼻不利, 時嚏, 清涕自出.^{6,12)}
- 久風, 卒風, 緩急諸風, 卒發動不自覺知, 或心腹脹滿, 或半身不遂, 或口噤不言, 涎唾自出, 目閉耳聾, 或舉身冷直, 或煩悶恍惚, 喜怒無常, 或脣青口白戴眼, 角弓反張, 始覺發動, 馬黃黃疸.^{10,11)}
- 風眩頭痛, 鼻衄, 窒, 喘息不通 欬逆.¹⁰⁾
- 上氣短氣, 欬逆, 胸背微痛.²¹⁾
- 主風眩頭痛, 鼻軌不利, 時嚏, 清涕自出.^{12,31)}
- 傷寒頸項強, 目瞑, 多嚏, 鼻軌出清涕, 風勞嘔逆上氣, 胸背痛, 喘氣臥不安.¹⁴⁾
- 主傷寒項強, 目瞑, 鼻塞, 風勞, 嘔逆, 上氣, 胸痛背痛, 氣短不安, 風眩頭痛, 鼻清涕出, 時時嚏不已, 鼻衄, 窒, 喘息不通, 欬逆.¹⁶⁾
- 主發背癱疽, 身熱上氣, 短氣, 欬逆, 胸背痛, 風勞, 嘔吐, 傷寒頸項強, 目瞑胸中熱.^{17,20)}
- 主傷寒頭痛, 項強, 鼻塞流涕, 目瞑, 衄血, 咳嗽, 嘔逆, 胸背痛, 氣短不安.¹⁸⁾
- 主傷寒項強, 目眩, 胸中熱, 嘔喘, 背痛, 腠理不密, 易受風寒, 咳嗽嚏不已, 鼻流清水, 若腠密玄府不泄, 取是穴類刺, 泄去熱氣, 背永不發癱疽.²⁵⁾
- 主治傷寒頭痛項強, 目瞑軌衄, 胸中熱, 嘔逆, 上氣喘, 臥不安, 身熱黃疸, 癱疽發背. 此穴能瀉一身熱氣, 常灸之 永無癱疽瘡疥等患.²¹⁾
- 治易感風寒, 欬嗽痰血, 多嚏, 軌衄, 癱疽發背.²⁹⁾
- 主治發背癱疽, 身熱, 上氣, 喘氣, 欬逆, 胸背痛, 風勞,

이상의 主治를 살펴보면 風門은 督脈과 足太陽의 會穴로 太陽은 開가 되고 一身의 表를 主하고 督脈은 總督諸陽經의 作用이 있고 “督脈爲病, 脊強反折” 한다. 또한 肺主氣하고 衛에 속하며 外로는 皮毛와 合하고 宗氣가 出入하는 곳이므로 外邪가 侵襲하면 肺가 당연히 그 공격을 받는다.

風은 陽邪로 그 性質이 輕揚하여 “高巔之上, 惟風可到”, “傷于風者, 上先受之” 한다. 따라서 外邪가 太陽을 속박하고 督脈을 侵襲하면 肺臟에 들어와 肺衛를 속박하므로 風邪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疾病이 모두 風門의 치료범위에 속하게 된다.³⁷⁾

그 외에도 足太陽의 經脈, 經別, 經筋 및 督脈의 循行이 모두 風門을 지나므로 그 穴位의 所在와 經脈, 經別, 經筋의 순행에 따라 風門은 脊背, 肩臂, 氣管支疾患과 督脈, 足太陽經의 角弓反張, 脊強而折 등의 病症을 다스리게 된다.

한편 風門의 刺針深度는 三分, 五分정도를 자침하거나, 斜刺로 0.5~0.8寸을 刺鍼하며 艾灸는 三壯, 五壯, 七壯, 五十壯, 百壯 등으로 多樣하게 使用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風府는 《黃帝內經素問·風論》⁹⁾에서 “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 이라고 하여 처음 기록된 經穴로

嘔吐, 多嚏, 鼻衄, 鼻出清涕, 傷寒頭痛.³²⁾

• 主治傷風咳嗽, 發熱頭痛, 項強, 腰背痛.³⁵⁾

• 感冒, 鼻炎, 氣管支炎, 肺炎, 咳嗽發熱頭痛, 微熱處理, 百日咳, 項強痛, 多嚏, 多涕, 胸中熱, 背癱疽, 喘息, 上氣嘔逆, 黃疸, 胸膜炎, 風眩頭痛, 蕁麻疹.¹⁾

11) ① 針法

• 刺入五分.^{6,17,18,19,20,21,23,25,29,17,31,32)}

• 針灸無在.^{10,11)}

• 針三分.^{17,20)}

• 斜刺 0.5~0.8寸.³⁵⁾

• 針深度 5分.¹⁾

② 灸法

• 灸三壯.^{6,23,25,32)}

• 灸五壯.^{12,16,17,18,19,20,21,29,31)}

• 灸七壯.¹¹⁾

• 灸五十壯.²⁵⁾

• 灸百壯.²¹⁾

• 灸3~5壯.³⁵⁾

• 灸 3壯.¹⁾

그 異名을 舌本, 鬼穴, 鬼枕, 曹谿, 鬼林, 熱府라고 하였다.

風府의 穴位에 대해서 項後入髮際一寸, 大筋內宛宛中. 七次脈頸中央之脈, 督脈也. 名曰風府. 在瘡門上一寸. 入項髮際一寸, 腦戶後一寸五分, 項大筋內宛宛中. 腦戶下一寸半, 大筋內. 髮際上一寸五分 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瘡門穴上 5分이고 後髮際上 1寸에 取穴하는 것으로 穴位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¹²⁾.

風府의 風은 氣를 가리키고 또한 風邪를 가리키며 府는 府庫를 의미하는 것으로 風府는 風邪가 가장 쉽게 쌓이고 風을 다스리는데 마땅히 取해야 할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風府의 歸經에 대해서는 七次脈頸中央之脈, 督脈. 督脈陽維之會. 足太陽, 陽維, 督脈之會라 하고 風府는 祛風邪, 利機關, 清神表, 泄氣火. 하는 穴性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¹³⁾.

12) 風府의 出處, 異名 및 穴位

出處: 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⁹⁾

異名: 舌本,^{1.6.12.13.14.17.19.20.21.24.25.29.31)}

鬼穴,^{1.11)}

鬼枕, 曹谿, 鬼林, 熱府.¹⁾

穴位

• 項後, 入髮際一寸, 大筋內宛宛中^{7.9.10.11)}
12.13.14.15.16.17.19.20.21.22.23.25.26.30.31.33)

• 七次脈頸中央之脈, 督脈也. 名曰風府.^{5.8)}

• 在瘡門上一寸.¹⁴⁾

• 入項髮際一寸, 腦戶後一寸五分, 項大筋內宛宛中.²⁷⁾

• 腦戶下一寸半, 大筋內.^{18.24.25)}

• 髮際上一寸五分.²⁸⁾

• 瘡門穴上 5分이고 後髮際上 1寸에 取穴.¹⁾

13) 風府의 經穴命名의 意義 및 歸經과 穴性

① 經穴의 意義

• 風, 見風門條:府, 見中府條. 指其爲風邪最易儲積與治風所宜取之處. 腦與頸項 容易受風邪之侵犯, 而其間之諸風穴(風府, 風池, 風門, 翳風, 秉風等)也 爲治療風邪所必須. 此處之 '風府' 與《素問·瘧論》 및 《靈樞·歲露論》 風無常府之 '風府' 有別.³⁴⁾

② 歸經과 穴性

• 七次脈頸中央之脈, 督脈.^{5.8)}

• 督脈陽維之會.^{6.9.12.14.19.21.23.25)}

• 足太陽, 陽維, 督脈之會.^{17.20.29)}

督脈經은 《素問·骨空論》⁹⁾에서 "督脈者 起於少腹 以下骨中央 女子入繫廷孔 其孔溺孔之端也. 其絡循陰器 合纂間 繞纂後 別繞腎 至少陰與巨陽 中絡者 合少陰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起於目內眦 上額交巔 上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臂膊內. 俠脊抵腰中 入循膂絡腎. 其男子循莖下至纂 與女子等 其少腹直上者 貫膂中央 上貫心 入喉上頤 還脣上繫兩目之下中央" 이라 하였고 《難經》³⁸⁾에서 "督脈者, 起于下極之俞, 并于脊裏, 上之風府, 入于腦" 라 하였다.

따라서 그 循行處의 會陰, 陰器, 肛門, 腎, 腦, 心, 脊柱, 腰骶, 項, 顛頂, 額, 鼻疾患등이 모두 督脈經의 치료범위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風府는 陽維脈과 交會하고 督脈은 并脊入腦하여 足厥陰肝經과 顛頂에서 交會하며 《難經 29難》³⁹⁾에서 "督之爲病, 脊強而厥" 이라 하고 《素問 骨空論》⁹⁾에서 "督脈爲病, 脊強反折" 이라 하였으므로 風府는 陽維脈으로 病이 되는 頭項痛, 後頭痛等의 疾患과 風邪가 督脈에 侵入하여 發生하는 項背強急, 破傷風等의 疾患을 治療하는데 使用할 수 있다.

따라서 文獻上 風府의 主治를 살펴보면 中風 舌緩不語, 半身不遂, 頭痛項急, 不得回顧, 狂, 癡瘖, 目眩, 頭風旋暈, 嘔吐不止, 瀉胸中之熱. 등이다¹⁴⁾.

• 巨陽者, 諸陽之屬也, 其脈連於風府.^{13.17.21)}

• 祛風邪, 利機關, 清神表, 泄氣火.¹⁾

14) 風府의 主治

• 主中風舌緩不語, 振寒, 汗出, 身重, 偏風半身不遂, 頭痛項急, 不得回顧, 傷寒發狂.¹⁹⁾

• 主項如拔不可左右顧.

• 主鼻塞喘息不利, 鼻鳴辟多涕, 軌衄有瘡.

• 主舌緩, 瘖不能言, 舌急語難

• 主骨痠, 眩, 狂, 癡瘖, 口噤, 喉鳴沫出, 瘖不能言.

• 足不仁

• 衄不止, 並治陰卵腫.

• 狼退風, 半身不遂, 失音不語

• 主目痛不能視

• 主狂易, 多言不休.

• 主狂走欲自殺.¹⁰⁾

• 風邪를 主治, 中風, 感冒, 舌緩不語, 身重惡寒, 頭痛, 項急, 偏風半身不遂, 衄血, 咽喉腫痛, 黃疸, 神經症, 精神分裂, 頸項部神經痛, 半身不遂, 目眩, 頭風旋暈,

- 嘔吐不止.¹⁾
- 治頭痛, 頸急, 不得回顧, 目眩, 鼻衄, 咽喉痛, 狂走, 目妄視.¹⁴⁾
- 主治頭痛項強, 狂症癲癩, 中風不語, 半身不遂, 目眩, 鼻衄, 咽喉腫痛.³⁵⁾
- 主頭痛項急不得側顧, 目眩暈, 不得喘息, 舌急難言, 狂易, 多言不休, 狂走欲自殺, 目反妄見, 暴瘡不得言, 喉啞痛, 足不仁.¹²⁾
- 主治中風舌緩, 暴瘡不語, 振寒汗出, 身重, 偏風半身不遂, 傷風頭痛項急, 不得回顧, 目眩 反視, 鼻衄, 咽痛, 狂走, 悲恐驚悸欲自殺.
- 主瀉胸中之熱.²¹⁾
- 主頭痛項急, 喘急, 目眩, 舌急難言, 啞痛, 足不仁, 狂走欲自殺, 目反妄見.³¹⁾
- 脚氣之病, 先起嶺南, 稍來江東, 得之無漸, 或味覺疼痛, 或兩脛小滿, 或行起忽弱, 或小腹不仁或時冷時熱, 皆其候也. 不即治轉上入腹, 便發氣, 則殺人.⁷⁾
- 邪病臥腹腹不自知
- 治馬黃, 黃疸.¹¹⁾
- 足不仁
- 頭痛項急, 不得傾側, 目眩, 鼻不得喘息, 舌急難言.⁶⁾
- 狂易多言不休, 及狂走欲自殺, 及目妄見,
- 暴瘡不能言, 喉啞痛.⁶⁾
- 主中風舌緩不語, 振寒, 汗出, 身重, 惡寒, 頭痛項急, 不得回顧, 偏風半身不遂, 鼻衄, 咽喉腫痛, 傷寒, 狂主欲自殺, 目妄視, 頭中百病, 馬黃黃疸.²⁰⁾
- 頭項紅腫強痛.²⁴⁾
- 治中風舌緩不語, 振寒, 汗出, 半身不遂. 頭痛, 項急, 鼻衄, 咽痛, 狂欲自殺.²⁹⁾
- 鼻衄不止…風府…³⁰⁾
- 舌強難言金津玉液廉泉風府.³⁰⁾
- 小兒馬癩…又法風府各三壯.³⁰⁾
- 主中風舌緩不語, 振寒, 汗出, 身重, 惡寒, 頭痛項急, 不得回顧, 偏風半身不遂, 鼻衄, 咽喉腫痛, 傷寒, 狂主欲自殺, 目妄視, 頭中百病, 馬黃黃疸.¹⁷⁾
- 仲景曰,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¹⁷⁾
- 東垣曰, 少陽頭痛,
- 項疽發於腦 之下 項之上.¹⁷⁾
- 主中風舌緩不語, 振寒汗出, 身重惡寒, 頭重如石, 項急不得回顧, 目眩, 鼻衄, 咽痛, 頭中百病.²⁵⁾
- 頭項強痛.¹⁵⁾
- 振寒, 汗出 頭痛, 身重惡寒
- 調其陰陽, 不足則補, 有餘則瀉. 大風頭項痛.⁹⁾
- 風為百病之源, 風初入身, 凡有五種, 一者振寒, 二者汗出, 三者頭痛, 四者身重, 五者 惡風寒, 觀虛實取之風府, 風府受風要處也.⁸⁾
- 風邪者 主治, 中風, 感冒, 舌緩不語, 身重惡寒, 頭痛, 項急, 偏風半身不遂, 衄血, 咽喉腫痛, 黃疸, 神經症,

한편 風府의 刺鍼深度는 三分, 四分과 直刺或向下斜刺時에 0.5~1寸, 直刺時에 4~6分등으로 되어 있으나, 解剖學的으로 風府 아래에는 延髓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注意깊은 刺針이 要求된다¹⁵⁾.

艾灸는 三壯, 七壯, 灸三百壯, 可灸라 하였으나 大部分의 鍼灸書에서 禁不可灸 라 하였으니 施灸에 있어서 注意가 要할 것으로 思料된다¹⁶⁾.

風市는 <肘後備急方>⁷⁾에서 “脚氣之病……次乃灸風市百壯” 이라고 하여 처음 기록된 經穴로 그 異名을 垂手라고 하였다.(표5-1)

風市의 穴位에 대해서 <肘後備急方>⁷⁾에서 “在兩髀外, 可平倚垂手, 手直掩髀上, 當中指頭大筋.” 라 하여 穴位를 말한 후로 <備急千金要方>¹⁰⁾ <醫心方>³¹⁾에서 “令病人起正身平立, 垂兩臂直下, 舒十指掩著兩髀, 便點當手中央指頭髀大筋上.” 라 하여 取穴法을 말하였는데 이후의 여러 鍼灸書에서 말한 穴位 및 取穴法은 在膝外兩筋間, 平立舒下兩手着腿, 當中指頭陷者宛宛中是也. 在膝上外側兩筋間, 直舒手着腿, 當中指盡頭陷中. 垂手中指盡處. 膝上外廉兩筋中, 以兩手着腿, 中指盡處是穴. 在膝上七寸, 股外側兩筋間, 垂手中指點到處是穴. 在膝上七寸, 外側兩筋間. 又取法: 令正身平立, 直垂兩手著腿, 當中指頭盡處陷中是穴. 等으로 모두 同一하니 요약하면 大腿骨外側으로 膝外側上 7寸에 大腿二頭筋에 取穴하는데 身體를 直立한 狀態에서 手臂를 下垂하면 中指尖이 닿는 位置를 取穴한다는 것이다¹⁷⁾.

精神分裂, 頸項部神經痛, 半身不遂, 目眩, 頭風旋暈, 嘔吐不止.¹⁾

15) 風府의 針法

- 針入三分.^{13.14.15.17.19.21.23.29.30)}
- 刺入四分.^{6.9.13.17.18.20.22.25)}
- 直刺或向下斜刺 0.5~1寸.³⁵⁾
- 直刺 4~6分.¹⁾

16) 風府의 灸法

- 禁不可灸.^{1.6.9.10.12.13.14.16.17.19.21.22.23.25.29.30)}
- 灸七壯.²²⁾
- 可灸.⁷⁾
- 灸三百壯.¹¹⁾
- 灸三壯.³⁰⁾

17) 風市의 出處, 異名 및 穴位

風市の 風은 風邪를 가리키며 市는 集市, 즉 貨物이 集散되는 곳을 말하므로 風市는 風邪가 쉽게 모이는 곳이고 또한 흩어지는 곳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風市の 歸經은 足少陽膽經으로 그 穴性은 祛風冷, 散寒溫, 強筋骨, 調氣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¹⁸⁾.

足少陽膽經은 《靈樞·經脈》⁵⁾에서 “膽足少陽之脈 起於目銳眦 上抵頭角 下耳後循頰 手少陽之前 至肩上 却交出手少陽之後 入缺盆 其支者 從耳後入耳

中 出走耳前 至目銳眦後 其支者 別銳眦 下大迎 合於手少陽 抵於頰下 加頰車 下頸合缺盆以下胸中 貫膈 絡肝 屬膽 循脇裏 出氣街 繞毛際 橫入髀厭中 其直者 從缺盆下腋 循胸 過季脇下合髀厭中 以下循髀陽 出膝外廉 下外輔骨之前 直下抵絕骨之端 下出外踝之前 循足附上 入小趾次趾之間 其支者 別附上 入大指之間 循大地岐骨內 出其端 還貫爪甲 出三毛”라 하여 本經의 俞穴이 膽과 膽과 有關한 肝膽病 및 그 經脈循行處의 疾病을 治療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病候에 대하여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頰痛 目銳眦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癭 汗出振寒 瘧 胸脇肋髀膝外至脛 絕骨 外踝前及諸節皆痛.”라 하였으니 각종의 少陽經症, 腑證 및 經脈循行處의 下肢病變을 治療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風市는 足少陽膽經의 下肢部에 있는 經穴로 下肢의 風氣가 恒常 여기에 모이므로 足少陽膽經 循行處의 髓股, 股, 膝部의 病變과 風邪로 인해 일어나는 下肢病變과 皮膚病을 治療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따라서 文獻上 風市의 主治를 살펴보면 腰腿痠痛 足脛麻頑 脚氣 起坐艱難 偏風半身不遂, 腿膝無力, 渾身瘙癢, 坐骨神經痛 등으로 下肢에서 風邪로 인해 일어나는 各種 疾患에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出處：脚氣之病……次乃灸風市百壯……⁷⁾

異名：垂手.^{1,35)}

穴位：· 在兩髀外, 可平倚垂手, 手直掩髀上, 當中指頭大筋.⁷⁾

· 令病人起正身平立, 垂兩臂直下, 舒十指掩著兩髀, 便點當手中央指頭髀大筋上.¹⁰⁾

· 在膝外兩筋間, 平立舒下兩手着腿, 當中指頭陷者宛宛中是也.¹³⁾

· 在膝上外側兩筋間, 直舒手着腿, 當中指盡頭陷中.^{22,29)}

· 垂手中指盡處.^{24,28)}

· 膝上外廉兩筋中, 以兩手着腿, 中指盡處是穴.^{18,20,30)}

· 在膝上七寸, 股外側兩筋間, 垂手中指點到處是穴.²⁵⁾

· 在膝上七寸, 外側兩筋間. 又取法:令正身平立, 直垂兩手着腿, 當中指頭盡處陷中是穴.^{21,26)}

· 在大腿外側部的中線上, 當圖橫紋上7寸, 或直立垂手時, 中指尖處.³⁵⁾

· 大腿骨 外側으로 膝外側上 7寸에 大腿二頭筋에 取穴한다. 身體를 直立한 狀態에서 手臂을 下垂하면 中指尖이 닿는 位置를 取穴한다.¹⁾

18) 風市의 經穴命名의 意義 및 歸經과 穴性

① 經穴의 意義

· 風, 參諸風穴條. 市, 集市, 貨物集散之處. 指穴處易爲風邪所集聚, 亦爲驅散風邪之地也. <春秋繁露·五行對>: ‘地出雲爲雨, 起氣爲風.’ 故下肢最易遭受風邪之侵犯. 此處爲風邪所常入, 亦爲治風之常穴.³⁴⁾

② 歸經과 穴性

- 足少陽經穴.⁶⁾
- 足少陽膽經.³⁵⁾
- 祛風冷, 散寒溫, 強筋骨, 調氣血.¹⁾

19) 風市의 主治

- 主治 腰腿痠痛 足脛麻頑 脚氣 起坐艱難 先瀉後補 風痛 先補後瀉 此風痺 冷痛之要穴.²⁶⁾
- 偏風半身不遂
- 中風.²²⁾
- 主治腰腿痠痛, 下肢痿痺, 脚氣, 半身不遂.³⁵⁾
- 治腰腿痠痛, 足脛麻頑, 脚氣, 起坐困難, 先瀉後補. 風痛先補後瀉. 兼陰市能灸腿脚之乏力. 治偏風半身不遂, 兩腿疼痛灸.²¹⁾
- 脚氣.^{11,31)}
- 主癰風瘡.¹⁸⁾
- 脚氣之病 得之無漸, 或微覺疼痺, 或兩脛小滿, 或行起忽弱, 或小腹不仁, 或時冷 時熱, 皆其候也.
- 脚氣
- 緩縱痿痺 膕腸疼冷不仁.¹⁰⁾

한편 風市の 刺針深度에 대해서는 五分 혹은 直刺 5~8分이라 하였으나, 해부학적 위치상 深刺도 可能하므로 《新編鍼灸》³⁵⁾에서는 直刺 1~2寸까지도 可能하다고 하였다²⁰⁾.

艾灸는 문헌마다 灸三五壯, 灸五壯, 灸5~7壯, 灸五十壯, 灸百壯등 다양하게 시술하였다²¹⁾.

風池는 《靈樞·熱病》⁵⁾에서 五十九刺의 하나로 처음 기록된 經穴로 風池의 風은 風邪를 가리키며 池는 水之停聚處로 머무르고 모이는 것을 말하므로 風池는 風邪가 쉽게 流注하는 곳이고 治風에는 꼭 취해야 할 要穴임을 의미하고 있다²²⁾.

風池의 穴位에 대해서 耳後顛顚候, 腦空下, 髮際陷中, 按之引於耳中. 後髮際陷中. 在顛顚候髮際陷中. 在顛顚候, 髮際陷中. 與風府正相當即是, 側相去各二寸爲定穴. 在胸空下, 髮際陷中. 在項部, 當枕骨之下, 與風府相平, 胸鎖乳突肌與斜方肌上端之間的凹陷處. 深層爲頭肌: 有枕動, 靜脈分支: 枕小神經之支. 耳後

陷中, 後發際大筋外廉. 耳後一寸半, 橫俠風府. 耳後髮際陷中. 在耳後, 腦空下髮際陷中, 大筋外廉, 按之引耳. 在腦空後髮際陷中. 在腦空候, 大筋上, 髮際陷中, 俠風府兩旁各二寸, 按之引於耳中. 在耳後顛顚骨筋下入髮際. 位置 및 取穴: 腦空穴 下方 1寸5分 髮際陷中으로 完骨穴과 天柱穴(膀胱經)과의 中間點 凹陷部인데 按壓하면 耳中으로 反應이 있다(耳垂相平處)라 하여 여러 가지 記述이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思料된다²³⁾.

風池는 足少陽膽經의 經穴로 足少陽陽維之會. 手足少陽脈之會. 足少陽膽, 又陽維脈. 手足少陽, 陽維之會. 足少陽陽維之會. 陽蹻之所入也,라 하여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穴性은 祛風解表, 疏邪清熱, 明眼目, 利機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²⁴⁾.

23) 風池의 穴位

- 耳後顛顚候, 腦空下, 髮際陷中, 按之引於耳中.^{17,19,20,21,30,32)}
- 後髮際陷中.²⁶⁾
- 在顛顚候髮際陷中.^{6,10,11,12,14,23,27,31,33)}
- 在顛顚候, 髮際陷中. 與風府正相當即是, 側相去各二寸爲定穴.¹⁶⁾
- 在胸空下, 髮際陷中.²²⁾
- 在項部, 當枕骨之下, 與風府相平, 胸鎖乳突肌與斜方肌上端之間的凹陷處. 深層爲頭肌: 有枕動, 靜脈分支: 枕小神經之支.³⁵⁾
- 耳後陷中, 後發際大筋外廉.²¹⁾
- 耳後一寸半, 橫俠風府.¹⁸⁾
- 耳後髮際陷中.²⁸⁾
- 在耳後, 腦空下髮際陷中, 大筋外廉, 按之引耳.²⁹⁾
- 在腦空後髮際陷中.¹³⁾
- 在腦空候, 大筋上, 髮際陷中, 俠風府兩旁各二寸, 按之引於耳中.²⁵⁾
- 在耳後顛顚骨筋下入髮際.¹⁵⁾
- 位置 및 取穴
腦空穴 下方 1寸5分 髮際陷中으로 完骨穴과 天柱穴(膀胱經)과의 中間點 凹陷部인데 按壓하면 耳中으로 反應이 있다(耳垂相平處).¹⁾

24) 風池의 歸經과 穴性

- 足少陽膽經.³⁵⁾
- 足少陽陽維之會.^{6,12,21,23,29)}
- 手足少陽脈之會.⁹⁾
- 足少陽膽, 又陽維脈.³¹⁾

- 主癰風瘡
- 主中風腿膝無力, 脚氣, 渾身瘙癢, 麻痺.^{20,25,29)}
- 浮風, 渾身瘙癢.²⁴⁾
- 腿骨疼, 四肢麻木.³⁰⁾
- 療冷痺, 脚脛麻, 腿膝痠痛, 腰重, 起坐難.¹³⁾
- 中風, 腿膝無力, 脚氣, 全身瘙癢, 坐骨神經痛, 偏癱, 下肢麻痺, 腹內虛鳴, 眼紅腫, 頭痛.¹⁾

20) 風市の 針法

- 鍼五分.^{18,20,25,26,29,30)}
- 直刺 5~8分.¹⁾
- 直刺 1~2寸.³⁵⁾

21) 風市の 灸法

- 灸三五壯.²⁶⁾
- 灸五壯.^{18,20,29,30)}
- 灸5~7壯.^{1,35)}
- 灸五十壯.²⁵⁾
- 灸百壯.^{11,31)}

22) 風池의 出處

• 所謂五十灸刺者, 兩手外內側各三, 凡十二疔; 五指間各一, 凡八疔; 足亦如是; 頭入髮一寸傍三分各三, 凡六疔; 更入髮三寸邊五, 凡十疔; 耳前後口下者 各一, 項中一, 凡六疔; 巔上一, 顛會一, 髮際一, 廉泉一, 風池二, 天柱二.⁵⁾

經穴의 意義

• 風, 見風門條. 池, 見曲池條. 爲風邪易於流連和爲治風之所當取處.³⁴⁾

足少陽膽經은 《靈樞·經脈》⁵⁾에서 “膽足少陽之脈 起於目銳眥 上抵頭角 下耳後循頸 手少陽之前 至肩上 却交出手少陽之後 入缺盆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至目銳眥後 其支者 別銳眥 下大迎 合於手少陽 抵於頤下 加頰車 下頤合缺盆以下胸中 貫膈 絡肝 屬膽 循脇裏 出氣街 繞毛際 橫入髀厭中 其直者 從缺盆下腋 循胸 過季脇下合髀厭中 以下循髀陽 出膝外廉 下外輔骨之前 直下抵絕骨之端 下出外踝之前 循足附上 入小趾次趾之間 其支者 別附上 入大指之間 循大地歧骨內 出其端 還貫爪甲 出三毛”라 하여 本經의 俞穴이 膽과 有關한 肝膽病 및 그 經脈循行處의 疾病을 治療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病候에 대하여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頤痛 目銳眥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癭 汗出振寒 癰 胸脇肋 髀 膝外至脛 絕骨 外踝前及諸節皆痛.”라 하였으니 各宗의 少陽經症, 腑證 및 經脈循行處의 下肢病變을 治療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中에서도 風池는 頸項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經脈循行處의 頸項部에 나타나는 經筋拘急 혹은 捻挫로 인한 左右回顧不利등의 病症에 使用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한편 陽維脈은 維絡諸陽하고 督脈과 交會하여 三陽經과 밀접한 關係가 있는데 그 中에서도 足太陽, 少陽經의 關係는 더욱 밀접하다. 따라서 手足少陽, 陽維脈의 會穴인 風池는 外感風寒, 風熱로 일어나는 感冒와 陽維가 病이 되는 寒熱, 頭痛, 項痛, 眉稜骨痛, 目赤痛, 眩暈등을 治療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肝은 風木의 臟으로 쉽게 生風하는데 膽은 肝에 寄附하여 肝膽之火가 循經上擾하게 된다. 이것을 《素問·至眞要大論》⁹⁾에서는 “諸風掉眩, 皆屬于肝”, “諸暴強直, 皆屬于風”이라 하였으니 “高顛之上, 惟風可到”하고 “傷于風者, 上先受之”하므로 肝膽火가 왕성하여 循經上擾하게 되어 생기는 頭面, 腦,

眼, 耳病 및 狂, 癇등의 疾病도 모두 風池에서 治療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³⁸⁾

따라서 문헌상 風池의 主治를 살펴보면 偏正頭痛, 瘡癩, 口喎僻不能言, 項痛強不得回顧, 目眩, 項背僂, 耳鳴, 中風不語, 牙關緊閉, 頸項痛不得顧 등으로 風邪로 因해 일어나는 各種 疾患에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25) 風池의 主治

- 主治大風, 中風, 偏正頭痛, 瘡癩, 頸項如拔痛不得回顧, 目漏出, 腰背俱痛, 僂, 傷寒 熱病汗不出.¹⁹⁾
- 主項如拔不可左右顧 • 主目泣出
- 主瘡癩熱
- (傷寒)若病者三四日以上 • 瘡
- 瘡癩 • 主鼻衄, 窒, 喘息不通
- 主目痛不能視 • 主偏風
- 主面赤腫. • 主喉痺.
- 主口喎僻不能言 • 主寒熱癰仆.¹⁰⁾
- 寒熱, 傷寒汗不出.²²⁾
- 主治頭項強痛, 目赤痛, 軌衄, 耳鳴, 癰癩, 失眠, 健忘.³⁵⁾
- 主肺風面赤, 目視眩眩, 項痛強不得回顧, 面腫皮軟, 腦疼, 鼻衄窒, 喘息通, 咽喉僂引 項攣不收, 寒熱, 癰仆, 煩滿汗不出, 瘡癩發, 洒灑惡寒, 熱溫並汗不出, 目眩, 頭痛, 淚出, 欠氣多, 目內子赤痛, 氣發耳塞, 口僻, 項背僂.¹⁶⁾
- 治洒灑寒熱, 溫病汗不出, 目眩, 若頭痛, 瘡癩, 頸項痛不得回顧, 目漏出, 欠氣多, 鼻衄衄, 目內眦赤痛, 氣發耳塞, 目不明, 腰僂, 引項筋無力不收.¹⁴⁾
- 寒熱, 癰疾僂仆, 狂, 溫熱病汗不出, 氣頭眩痛, 瘡癩, 頸項痛不得顧. 目泣出, 鼻衄衄, 目內眦赤痛, 氣發耳塞, 目不明, 喉痺, 僂引項筋攣不收.¹²⁾
- 主治中風偏正頭痛, 傷寒熱病汗不出, 瘡癩, 頸項如拔痛不得回, 目眩赤痛, 漏出, 軌衄, 耳聾, 腰背俱痛, 僂引項筋無力不收, 脚弱無力. 一傳治中風不語, 牙關緊閉, 湯水不能入口.²¹⁾
- 主寒熱, 癰仆, 狂, 熱病汗不出, 眩頭痛, 頸項痛, 耳目不用, 咽喉僂引.³¹⁾
- 主腦疼, 肺風面赤而腫, 目眩, 項強, 鼻衄, 咽喉僂引項攣不收, 寒熱, 癰狂, 煩滿汗不出, 瘡癩, 寒熱, 熱病汗不出, 目眩, 頭痛, 漏出, 欠氣, 目眦赤痛, 氣發耳塞, 口僻, 項背僂.¹⁸⁾
- 主偏風 • 治猩退風
- (傷寒)若病者三四日以上

• 手足少陽, 陽維之會.^{14,17,19,20,35)}
 • 足少陽陽維之會. 陽蹻之所入也.²⁵⁾
 • 祛風解表, 疏邪清熱, 明目目, 利機關.¹⁾

한편 風池의 刺針深度에 대해서는 三分, 四分, 5~7分, 七分, 一寸二分, 斜刺로는 0.8~1.2寸, 橫刺로는 一寸半, 三寸半이라 하였으나 그 深部에는 延髓가 位置하고 있으므로 深刺는 注意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²⁶⁾.

艾灸는 三壯, 七壯, 二七壯, 七壯至一百壯至, 灸七壯至一百五壯止. 日七壯至百壯 이라고 하였으나 인근에 延髓가 있으므로 直接灸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思料된다²⁷⁾.

- 狂巔驚走風, 恍惚嘔善, 笑歌哭鬼語, 猥退風半身不遂.¹¹⁾
- 熱病汗不出
- 鼻軌衄, 目內眦赤痛, 氣厥, 耳目不明, 咽喉僂咽項筋攣不收, 頸痛項不得顧 • 瘡癰
- 寒熱 • 風水膝腫,
- 肘腫 • 頭痛
- 瘡疾.⁶⁾
- 主洒淅寒熱, 傷寒溫病汗不出, 目眩苦, 偏正頭痛, 瘡癰, 頸項如拔痛不得回顧, 目僂出, 欠氣多, 鼻軌衄, 目內眦赤痛, 氣發耳塞, 目不明, 腰背俱疼, 腰僂引經筋無力不收, 大風中風, 氣塞涎上不語, 昏危, 癩氣.²⁰⁾
- 治偏正頭痛, 傷寒熱病汗不出, 瘡癰, 頸項痛, 目眩, 赤痛淚出, 耳聾, 腰背痛.²⁹⁾
- 頭風頭痛, 內障眼, 頭頂痛, 頭風目眩 偏正頭風 紅腫疼痛眼, 努肉侵睛.³⁰⁾
- 主治洒淅寒熱, 傷寒溫病汗不出, 目眩, 舌強, 偏正頭痛, 目淚出, 欠氣多, 頸筋無力不收, 大風, 中風, 氣塞涎上不語.³²⁾
- 患大風者.^{13,17)}
- 東垣曰:少陽頭痛, 風寒傷上, 邪從外入, 令人振寒, 頭痛, 身痛惡寒.¹⁷⁾ 語.¹⁾
- 頭風痰飲.¹⁵⁾
- 主洒淅寒熱汗不出, 頭痛, 頭眩目暈, 偏正頭痛, 頸項強急, 腰背僂僂, 目赤, 軌衄, 癩, 瘡, 中風, 氣塞涎上不語, 昏危, 癩氣, 不能發汗.²⁵⁾
- 腦出血, 偏頭痛, 肥厚性鼻炎, 蓄膿症, 傷寒溫病汗不出, 目眩, 頸項如拔痛不得回顧, 目淚出, 目不明, 氣發耳塞, 腰背俱痛, 腰僂引頸筋無力收, 感冒, 耳聾, 腦疾患, 中風上下 肢不遂, 高血壓, 頭面頸項部疼痛, 腰背痛, 不眠, 耳鳴, 中風不語

26) 風池의 針法

- 三分.^{6,9,17,18,25,30)}
- 四分.^{17,21)}
- 針入5~7分.¹⁾
- 鍼入七分.^{13,14,17,20,23,25,29,32)}
- 鍼一寸二分.²²⁾
- 斜刺 0.8~1.2寸.³⁵⁾
- 橫刺一寸半.¹⁵⁾
- 橫刺三寸半.²⁵⁾

IV. 결론

十四經脈中 ‘風’ 字가 包含된 經穴에 대한 文獻을 考察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秉風은 手太陽小腸經으로 肩胛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手陽明, 太陽 및 手足少陽의 會라 하였고 足少陽 혹은 手少陽 혹은 手陽明의 經氣가 失常되어 나타나는 局所의 疾患을 治療하는데 使用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주로 手太陽小腸經의 순행처에 風邪가 侵襲하여 나타나는 疾患에 많이 使用되었다.
2. 翳風은 手少陽三焦經으로 耳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手足少陽之會라 하였고, 穴位所在의 局所部位의 疾病을 治療하고, 그 중에서도 陽實症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주로 手少陽三焦經의 순행처에 風熱邪가 침습하여 나타나는 질환에 많이 使用되었다.
3. 風門은 足太陽膀胱經으로 督脈과 足太陽의 會穴이며, 風邪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疾病이 모두 風門의 치료범위에 속하게 되며, 足太陽의 經脈, 經別, 經筋 및 督脈의 循行이 모두 風門

27) 風池의 針法 및 灸法과 主治

- 灸三壯.^{6,9,12,13,19,25,31)}
- 灸三壯, 七壯.^{1,10,21,35)}
- 灸七壯.^{14,15,20,23,29,30,32)}
- 灸二七壯.¹⁵⁾
- 灸七壯至一百壯至.¹⁸⁾
- 灸七壯至一百五壯止.¹⁶⁾
- 日七壯至百壯.²²⁾

을 지나므로 그 穴位의 所在와 經脈, 經別, 經筋의 循行에 따른 病症을 다스리게 된다.

4. 風府는 督脈에 屬하며 陽維脈과 교회하고 督脈은 并脊入腦하여 足厥陰肝經과 顛頂에서 交會하므로, 陽維脈으로 병이 되는 頭項痛, 後頭痛 등의 疾患과 風邪가 督脈에 侵入하여 發生하는 項背強急, 破傷風 등의 疾患을 治療하는데 使用할 수 있다.
5. 風市는 足少陽膽經의 下肢部에 있는 經穴로 下肢主 治의 風氣가 恒常 여기에 모이므로, 足少陽膽經 循行處의 髀股, 股, 膝部의 病變과 風邪로 因해 일어나는 下肢病變과 皮膚病을 治療할 수 있다.
6. 風池는 足少陽膽經에 屬하고 頸項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經脈循行處의 頸項部에 나타나는 經筋拘急 혹은 捻挫로 인한 左右回顛不利 등의 病症에 使用할 수 있으며, 手足少陽, 陽維脈의 會穴인 風池는 外感風寒, 風熱로 일어나는 感冒와 陽維가 病이 되는 寒熱, 頭痛, 項痛, 眉稜骨痛, 目赤痛, 眩暈 등을 治療할 수 있으며, 肝膽火가 왕성하여 循經上擾하게 되어 생기는 頭面, 腦, 眼, 耳病 및 狂, 癲 등의 疾病도 治療할 수 있다.

以上으로 '風' 字이 包含된 經穴은 外感風邪가 동반된 六淫에 依한 疾患과 內風으로 發生된 病症에 基本的인 主治를 가지고 있으며, 穴位所在의 局所부위 疾病을 治療하는데도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참고문헌

- 1) 林鍾國, 針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p.123, 343, 426, 359, 360, 478, 450, 444. 1983.

- 2) 國際韓醫科學生會, 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1990. pp.11~12.
- 3) 周楣聲, 針灸穴名釋義,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5 : pp7~15, p59, 64, 97, 98, 104, 107, 120.
- 4) 황인수, 風의 生理學的 認識, 大韓韓醫學會誌. 1990: 第11卷 第2號: p177.
- 5) 靈樞經, 欽定四庫全書子部五醫家類 서울, 大成文化社, 1995: pp.733~320, 324, 332, 342, 343, 362, 371.
- 6) 皇甫謐, 針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70, 72, 73, 79, 80.
- 7) 葛洪, 肘後備急方, 欽定四庫全書子部五醫家類, 서울, 大成文化社, 1995: pp734~422, 423.
-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成文化社. 1986: p.147, 149.
- 9) 王冰, 黃帝內經素問, 欽定四庫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5 : pp.733~23, 103, 135, 136, 168, 171, 172, 174~176, 179, 182, 186, 277.
- 1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成文化社, 1995: pp.735~330, 350, 358, 359, 880, 881, 885, 890, 904~909, 920, 930, 936.
- 11) 孫思邈,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98, 194, 309, 310, 313, pp.319~322, 326.
- 12) 王燾, 外臺秘要,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39, 379, 1092, 1110, 1112, 1115.
- 13) 王執中, 針灸資生經, 서울 一中社, 1981: p.4, 8, 11, 22, 27, 73.
- 14) 曹孝忠, 聖濟總錄,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p8, 9, 21, 30, 80.
- 15) 王國瑞, 扁鵲神應針灸玉龍經, 서울 醫聖堂. 1994: pp.73~74, pp.78~79.
- 16) 西方子, 明堂灸經, 欽定四庫全書子部五醫家類 6 서울, 大成文化社, 1995: p.738~71, 72, 74, 89.
- 17) 高武, 針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

- 78: p.53, 60, 94, 102, 120.
- 18) 李槌, 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1986: p.27
6, 278, 293, 296, 303.
- 19)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
991: p.399, 403, 426, 440.
- 20)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成文化社, 1985:
p.291, 296, 327, 335, 337, 360.
- 2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26,
222, 264, 272, 308.
- 22) 陳會, 神應經, 서울, 醫聖堂, 1994: p15, 34,
pp38~40.
- 23) 樓英, 醫學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242~244, p.247, 249.
- 24) 徐鳳, 鍼灸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90, 95, 101, 172, 173.
- 25) 吳崑, 針方六集校釋, 서울 醫聖堂, 1993: p62,
68, 95, 104, 107, 120.
- 26) 陳廷銓, 羅遺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76, 118, 213, 219, 132, 146, 154, 186.
- 27)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69, 173, 188, 194.
- 28) 張振鋆, 釐正按摩要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86, 89, 91, 93.
- 29) 李學川, 針灸逢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149, 152, 163, 166, 176.
- 30) 李守先, 繪圖針灸易學, 河北省, 中國書店, 1991:
上卷. 6, 中卷p.10, 13, 16, 19, 20.
- 31) 丹波康賴,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32, 36, 42.
- 32) 鍼灸醫學典籍大系, 針灸指南, 東京, 出版科學總
合研究所, 1978: 19, 30, 33.
- 33) 本間祥白 著, 吳家鏡 譯, 圖解十四經發揮, 正言
出版社, 1985: p.76, 84, 122, 113, 140,
- 34) 周楣聲, 針灸穴名釋義,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
85: pp.7~15, p59, 64, 97, 98, 104, 107,
120.
- 35) 程寶書主編, 新編鍼灸大辭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220~222, p.224, 550, 993.
- 36) 文濬典外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1 :
p32.
- 37) 李世珍: 常用俞穴臨床發揮,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1985: p.389, 654.
- 38) 王九思等 集注: 難經集注, 臺灣中華書局, 臺北,
中華民國74年: pp.161~163.